

#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재도약,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취재/김희란 사진/김현수

지난 2월 20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는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각 회원사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관 변경안, 감사 선임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범용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로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함께하며 회원사와 함께 상생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회원사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했다.





이범용 회장  
(주)에너지솔루션즈 대표

## “외형적인 성장은 하고 있으나 내실 측면과 관련하여 만족할만한지 생각해봐야 할 때”

몇 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대로 올해부터는 성과배분계약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과 함께 본격적인 성과보증방식으로의 전환은 물론 이차보전용자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자금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향후 ESCO사업이 정책자금이 아닌 민간자금에 의해 수행되도록 시장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갈 예정으로 보임에 따라 협회는 ESCO자금의 확대·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ESCO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함께하여 회원사와 함께 상생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회는 확인서 발급 및 경영상태 업계 평균 공시, ESCO 자체투자실적 인정 업무 등의 정부위탁업무와 에너지절약사업 사후관리용역, 국가연구개발사업, ESCO 관련 조사연구용역, ESCO교육사업, 각종 국제업무, ESCO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간담회, 세미나 등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한 해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엿볼수 있었다.

이후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심의·상정되었으며 유제인 감사의 감사보고와 더불어 올해 두번째로 외부회계감사인 도원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들었다. 협회는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사회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한 자금집행을 위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ESCO협회는 올해에도 ESCO시장의 활성화와 회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한 2013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정부위탁업무(확인서 발급,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 홍보 강화, 성과보증 검증기관 역할 수행 등) △에너지절약사업 사후관리용역(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시설 현장확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활용 설비투자 사업장 에너지절감량 조사, 사후관리용역·성과보증 검증 연계운영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건물에너지개선사업 및 ESCO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자료수



집·공동연구과제 추진) △에너지절약기술 연구용역 추진(IT기반 ESCO시범사업 및 ESCO M&V 가이드라인 개발 등) △ESCO 교육사업 △공공 및 유관기관 ESCO협력사업 등이 있다.

이 날 유제인 감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김동욱 성림산업개발 대표가 신임 감사로 추대돼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김동욱 신임감사  
(성림산업개발(주) 대표)

“협회가 회원사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ESCO가 올바른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협회 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협회가 창립된 90년대 이후 회원사로서 열심히 활동해 오며 몇차례 부회장 및 감사를 역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제는 조직이 많이 커지고 사업 분야도 확장되어 감사의 책임이 막중해짐을 느낍니다. 협회 정관에서 명시하는 대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협회가 하는 일에 감사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협회가 하지 않고 있는 업무를 하도록 독려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하고 회원사들이 좋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는 ESCO의 취지가 변형되어 자금조달에 집중되어 있지만, 자금보다는 기술력이 주도하는 올바른 시장이 정착되길 바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ESCO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범용 회장은 이번 2013년 정기총회를 통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산업 경제 환경 속에서 지금이 기회라며 업계끼리 상생하고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 ESCO, 에너지사용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부 행사로 에너지관리공단 김주완 ESCO팀장이 '2013년도 ESCO사업 자금지원 안내 및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지 14 ~ 15p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강원규 에너지사업지원이사

“ESCO협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ESCO 역시 일반공사와 차별성을 갖도록 전문성 확보와 기술력 배양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이상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ESCO사업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그 동안 정부와 공단, 그리고 ESCO기업간 가교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해왔으며 ESCO사업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ESCO협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김주완 ESCO팀장

“이번 총회 뿐 아니라 ESCO 교류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적인 방식인 ESCO가 투자를 하고 절감액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성과배분방식을 지원을 하지 않고, 에너지절감 보증액이 넘으면 ESCO와 사용자가 분배하고 절감량이 미달이면 ESCO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성과보증방식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에너지사용자 측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조명교체에서 폐열회수나 공정개선과 같은 기술력과 자금력 있는 사업으로 고도화 및 다양화되어 ESCO사업 규모가 커지고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SCO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에너지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나라를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ESCO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번 총회뿐 아니라 교류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합니다.

## “중소 ESCO를 위해 자금을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2010년부터 녹색그린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전 세계의 불황으로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다 빨리 활성화 되어지길 하는 바램이며, 앞으로 중소 ESCO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대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현실에 와 닿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확대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산은캐피탈  
전형준 ESCO팀장

## “녹색성장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특화된 에너지절감시장과 에너지플랜트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선진기술력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2013년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등 녹색성장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에너지절감투자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당사는 녹색성장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특화된 에너지절감시장과 에너지플랜트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선진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에너지정책의 부침이 심해 기업들의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책변경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사전공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친환경,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큰 에너지정책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며, 자금지원에 있어 대·중소기업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에버랜드(주)  
최철현 차장